



이달의 포커스 뉴스

2021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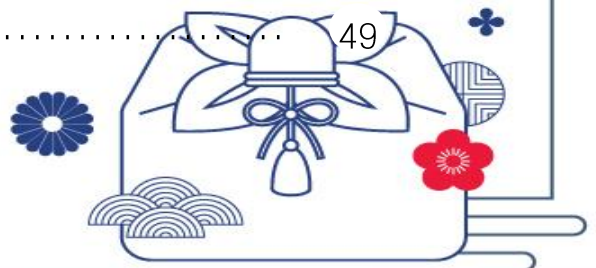
13P

고상구회장의 베트남 비즈니스이야기 1탄

준비 4개월만에 백화점 운영을 시작하다

21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 월간 뉴스 · 프로젝트 동향 ·	2
☑ <산업> 2021년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	13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 한국전력(KEPCO)	19
☑ <베트남 비즈니스이야기> ····· K-Market 고상구 회장	21
☑ <이달의 주요인물> 부임인터뷰 ····· 민문기 상무관	25
☑ <노무> 베트남 노조설립에 관한 법령 ····· 최지웅 변호사	28
☑ <법률> 프로젝트 오피스 청산 ····· 김유호 변호사	31
☑ <금융> 베트남 진출기업의 사용 계좌 안내 ····· 신한은행	33
☑ <새로나온 베트남 관련 보고서> ·····	36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카잉화성> ·····	38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지표 ·····	44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	49





베트남, 수출세 부과 절차 및 유의사항

- 수출세 부과 대상 여부 HS CODE별 확인 필요
- 임가공용 스크랩 수출, 수출세 부과 대상에 해당

수출세 부과 대상 물품

베트남은 현재 최저 2%에서 최고 40%에 이르는 수출관세를 HS CODE 기준 595개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 및 상세한 세율에 대해서는 57/2020/ND-CP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17년 이후 개정됐으며, 개정 시 특히 석재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 인상이 있었다. 베트남 재무부는 수출세 부과와 관련해서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물(자원세, 수출세, 수수료 및 요금, 채광권 부여를 위한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정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해 해당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수출세 계산방법

수출세는 FOB(본선인도가격) 및 DAF(국경인도가격)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세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text{CIF 가격} = \text{FOB 가격} + \text{해상운임} + \text{해상 보험료}$$

임가공용 수출 금속 스크랩에 수출세 부과 여부

금속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임가공용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베트남 관세청은 관련된 지침(1188/TCHQ)을 통해 임가공용 스크랩 및 금속 폐기물은 수출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세 과세 여부

베트남 정부는 환경 보호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제 조약 준수를 위해서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시사점

기본적으로 수출세는 원자재에 대한 수출 억제와 세수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여러가지 국제 경제 이슈들로 인해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도 철강 빌릿에 대해 수출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광물 또는 목재 등 원자재의 경우 베트남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 시 수출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현지의 경제 사정에 따라 추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니 진출기업의 면밀한 현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 투자 진출 검토 시 수입 세율에 대한 부과 절차와 면세 규정만 확인하고, 수출세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베트남 주요 도시 방역대책 동향 및 전망

- 4차 대유행에 따른 주요 도시의 방역 정책 변화에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강력한 봉쇄정책에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 시도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올해 초 1억 명을 넘은 뒤 8월 초에는 2억 명까지 돌파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철저한 봉쇄로 대표적인 모범 방역국으로 꼽혀왔던 베트남마저 남부 호치민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를 보이며 방역과 경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4월 30일(남부해방기념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연휴 이후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그 여파는 9월 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9월 5일 기준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베트남 내 신규 확진자 수는 506,912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한 도시는 호찌민(245,188명)이며 전체 감염자 수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인근 빈즈엉성(128,893명), 동나이성(27,306명), 롱안성(24,329명), 띠엔장성(10,438명)까지 합치면 남부지역이 이번 4차 대유행 감염자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도시의 코로나 방역대책 변화

4차 대유행이 시작된 후 베트남 중앙정부와 각 지방 성시 정부들은 지난 1~3차 대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실시했다.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시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봉쇄의 강도를 높여 나갔으며 코로나 상황이 급변하면서 각 도시의 봉쇄 정책도 유예기간 없이 발표 즉시 시행됐으며, 매주가 다르게 변화돼 진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만, 하노이와 다낭시는 9월부터 봉쇄의 순차적 해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

지난 1일 팜 밍 찌(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현재의 강력한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보건 전문가 70여 명이 참가한 회의에서 “봉쇄와 통제 목표를 설정했지만 우리는 전염병과 함께 오랜 시간 공존해야 하며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적절한 생존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며 사실상 세계적인 추세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사점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베트남은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코로나를 막아왔다. 다만, 세계적인 추세가 ‘위드 코로나’로 변화하면서 베트남 역시 이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베트남은 아직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백신 확보량이 부족하여 언제든지 강력한 봉쇄정책으로의 회귀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베트남의 특성상 중앙 정부의 정책이 각 성시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규정 또한 상이한 부분이 많으니 중앙정부의 정책 발표와 해당 기업이 소재한 성시에서의 동일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베트남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4차 대유행 현실화
- 비필수업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위기 속 생존 전략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의 현지 기업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필수업종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현지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3가지로 나누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았다.

일시적 업종 변경

하노이와 호찌민에 위치한 꽃배달 전문점 FlowerStore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급감을 타개하기 위해 필수 식료품인 채소와 면역력을 높여주는 과일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특히 비타민C, 비타민A, 스무디용 야채 등으로 세트를 만들어 외출이 어려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유통망 다각화

몇몇 기업들은 필수 업종으로 분류되는 마트로의 유통망 진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차(Tea) 음료 프랜차이즈인 푸롱(Phuc Long)은 최근 베트남 최대 유통망을 갖춘 빈마트+ 내에 매대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인 더커피하우스(The Coffee House)는 최근 캔커피를 출시하여, 마트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였다.

신제품 출시

신규 제품 혹은 브랜드 런칭으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려는 사례도 있다. 더컵스커피(The Cups Coffee)는 코로나 봉쇄기간동안 매출의 70%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회사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간파하고, 시금치와 파인애플 등을 갈아 만든 비타민 음료를 출시하였다. 담당자에 따르면 새로 출시한 비타민 음료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향후 회사는 웰빙 음료를 더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기타

가정용 식물을 판매하는 캐이 녀(Cay Nho)는 현재는 오프라인 판매를 중단하고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식물 관리법 등을 공유하며 코로나 이후 인지도 확대를 통한 판매 증가를 노리고 있다.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 비필수업종으로 지정되며 영업 중지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기뒤에는 항상 기회가 따르듯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디지털 전환 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번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릭시 영상으로 이동



e스쿠터를 중심으로 보는 베트남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 충전소 및 도로 정비 등에 따른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
- 전기스쿠터, 전기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확대 예상

베트남의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시장

베트남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성장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베트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록 숫자는 2019년에 140대, 2020년에 900대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60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자전거 및 스쿠터 그리고 오토바이까지 숫자를 확대한다면, 2019년 기준 약 500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베트남의 전기차 시장은 전동차, 스쿠터 등을 포함한 이륜차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오토바이, 스쿠터 등을 많이 활용해왔다. 출퇴근, 쇼핑, 배달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에 자동차 보다 훨씬 흔하게 보이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5년까지 베트남의 전기오토바이 시장은 22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측되며 2021~2025년까지 연간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자동차협회(Vietnam Automation Association)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 세계 4위를 달성할 만큼 오토바이 수요가 높은 나라이며, 도로상황이나 인프라를 비추어봤을 때 전기 오토바이가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한다.

e스쿠터 및 e오토바이 밸류체인

베트남 전기이륜차 시장은 해당 시장의 성장 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 그리고 부품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성장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특히 충전소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동반될 것이다. 대만의 경우 5km 반경 이내에 전기이륜차 충전소를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의 충전 인프라는 아직 열악한 상황이다. Vinfast는 이를 위해 올해까지 3만~5만 개의 충전소를 구축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8년에 Vietnam National Petroleum(Petrolimex), Vietnam Post Corp(VNPOST), Petro Vietnam Oil Corp(PVOIL) 등과 업무 협약 등도 체결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버스까지 도입할 계획이기에, 관련 인프라 확대에는 추진력이 더욱 붙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ESS 기반 에너지저장 그리고 공유경제 플랫폼과의 연계도 기대되고 있다.

시사점

이렇듯, 베트남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아직 젊지만 전기 이륜차 시장을 바탕으로 확대 되고 있다. Vinfast, Honda, Yamaha, BMI 등 주요 제조사 주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환경 오염과 관련된 정부 정책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과거 중국과 같은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은 더욱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산층 인구의 성장도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2030년 기준 도시화율이 44%로 확대될것으로 예측되기에, 도시 내에서의 이동수단인 오토바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시장의 도약

- 베트남 의료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
-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스타트업 부문은 아직 미미

베트남의 의료산업은 성장하는 경제와 탄탄한 인구 구조를 감안할때 잠재성이 충분하다. 2019년 기준 베트남의 의료시장(의료기기, 서비스 포함) 규모는 172억 달러였으며, 2022년에는 그 규모가 2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4차 유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현재 베트남의 의료인프라 전반과 스마트 헬스케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현황

전체 의료산업 중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만 놓고 봤을 때, 2019~2024년까지 해당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1.2%에 달해, 2024년이면 26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화가 필요한 의료시설, 그리고 주요 의료 네트워크의 장비 부족 등은 앞으로의 수요가 더욱 많을 것을 알려주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의 세부 품목들을 살펴보면, 주요 품목 중 영상진단기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환자보조기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환자보조기 같은 경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1.9%로, 2024년에는 4억5,360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디지털 및 스마트 헬스케어

베트남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21년 기준 7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EVFTA 체결에 힘입어 주요 국가들의 진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주요 제약 회사들의 공격적인 투자도 기대가 되고 있다. 베트남 1위 제약업체 DHG Pharma는 일본의 다이쇼 제약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문 의약품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고, 사비팜(Sa Vi Pharmaceutical JSC)은 호치민시에 약 2,000억 동(약 100억 원) 규모의 R&D센터를 착공하고 EU-GMP 인증까지 받은 상황이다.

시사점

2019년 9월 베트남 정부는 제 52호-NQ/TW 결의안을 발표하며 향후 IT를 접목시킨 디지털 및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을 다짐했다. 그만큼 국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의료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개선할 점이 많은 것은 관련 산업에 대한 진출 기회가 높은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국내 의료기기 생산은 아직까지 기본적인 제품에 한정적인 점 모두 우리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진출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낮은 인건비와 생산단가를 감안한 진출을 하고 있지만, 향후 전문 인력들이 육성되는 시점에는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장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소량 선호 특성에 부합하는 샘플경제

- 샘플 기초 화장품, 소량을 선호하는 특성과 부합해 온라인 상에서 큰 인기
- 이런 특성을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방법 제언

한국에서는 비매품/증정품인 샘플이 소량 선호, 가성비, 체험을 중시하는 베트남인의 특성에 부합해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런 특성에 맞는 샘플 경제, 소량 경제를 활용한다면 화장품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샘플 크기 제품 사용에 익숙한 베트남인 특성

베트남 골목을 살펴보면, 잡화점에서 샘플 형태의 샴푸를 걸어두고 판매하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샴푸, 바디워시, 세탁세제, 섬유 유연제 등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샘플형태로 판매되는 것이다.

베트남인 온라인 쇼핑 특성

시장조사기관 Euromonitor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도시지역 평균임금은 183달러(419만동)로 조사되었다. 원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소비를 추구한다. 같은 용량을 구입할 때 원 제품을 구입하는 것 보다 샘플 제품을 여러 개 사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시사점 1 : 작은 크기를 선호하는 베트남인의 구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때

샘플 판매는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과 제품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샘플을 구매해 사용해 본 후 제품 품질에 대한 우려를 없애면 원 제품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에서 샘플 크기 제품은 이미 생활에 널리 퍼져있고, 베트남인은 샘플을 증정품/비매품이 아닌,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비자가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식 판매처를 통한 샘플 제품 유통과 상품정보기재, 유통기한 표시 등 정보 제공이 소비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사점 2 : 여러 마케팅과 연결 가능

2012년 한국에서 한때 유행하다 샘플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해 시들해진 화장품 구독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상품에 유행중인 구독 경제 흐름에 맞춰 다시 한번 유행을 시작할 것을 보인다. 화장품 샘플 구독 서비스로 시작한 미미박스는 미미박스 2.0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구독 마케팅을 시작했다.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하고, 작은 용량 제품을 선호해 구매 빈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이런 구독경제는 더 적합한 마케팅일 수 있다.





베트남 환경분야 ESG 정책 동향

- 2022년 1월 1일, 베트남 개정 환경보호법 발효 예정
- 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오는 2022년 1월 1일, 베트남의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이 발효될 예정이다. 2014년 환경보호법과 비교하여 개정 환경보호법은 환경자원 보호, 환경 보호 정책, 환경보호정책 책임 주체, 생산 제조 기업 환경 보호 책임, 환경 영향 평가(EIA) 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보호 규정 구체화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의무 확대

개정 환경보호법은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 보호규정을 구체화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경제구역·산업단지 내 생산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호 및 관리 인프라를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보고서에 따른 규정을 명확화 한다. 또한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타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Tetra Pak 베트남의 Net Zero 목표

Tetra Pak 베트남은 199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책임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식품업계 최초로 과학적 탄소배출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대응한 기업이다. 공장에서는 연간 2,100만ℓ 이상의 물을 재사용 중이며 공장의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66% 낮다. 36.4헥타르 규모의 공장에는 31종의 다양한 수목이 식수돼 있어 공장의 산소 농도를 4배 높이고 직원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Tetra Pak 빈즈엉 공장에서는 매년 생산 폐기물의 65%를 회수 또는 재활용해 전 세계 200회 비행에 해당하는 4,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 또한 Tetra Pak은 2022년까지 자사 무균 음료 팩을 100% 재생가능한 원료로 제조해 재활용 및 재생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사점

세계적으로 ESG를 기업 운영의 핵심적 요소로 활용하는지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Net Zero정책을 발표하며 친환경 기조를 앞세움에 따라 전 세계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욱 강조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개정 환경법에 따르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그룹 3,4)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A)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Green Climate Fund에 따르면 생산기업 설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EIA)에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33만4,000달러로 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이 감소하며 이는 기업 설립비용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 베트남의 개정 환경보호법이 실시되기 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정 환경보호법상 베트남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1년 1-8월 베트남 철강제품 수출 127% 증가

'21년 1-8월 베트남의 철강제품 수출량은 85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3.4%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함. 주요 수출 시장으로는 270만 톤을 수입한 동남아시아와 180만 톤을 수입한 중국이 있음. 올해 8월 기준 EU와 미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 7.5배, 4배 증가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이 EU-베트남 FTA 협정을 통해 낮은 세율의 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베트남 철강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연간 철강제품 생산량은 2,400만 톤으로, 올해는 2,120만 톤의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VN Express, 9. 19]

▶ 코로나19 영향에 베트남 내 온라인 식품구매 소비자 수요 급증

iPrice Group에 따르면, '21년 2분기 온라인 식료품점과 관련된 Google 검색이 지난 1분기 대비 223% 증가하였으며, 7월 기준 전월 대비 11배 증가함. 또한, 신선식품, 음료,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색은 각 99%, 51%, 11% 증가함. 온라인 식료품 카테고리만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실제로 Shopee Vietnam의 2분기 방문자 수는 7,300만 명으로 1분기 대비 920만 명 증가하였으며, Lazada Vietnam의 방문자 수는 14% 증가한 2,040만 명을 기록함. 다만, Tiki와 Sendo의 평균 방문자 수는 각 1,720만 명, 790만 명으로 소폭 감소함.

[Saigon Online, 9. 19]

▶ 재무부(MoF), 팬데믹으로 "국가 조세 수입에 계속해서 타격을 입을 것" 우려

베트남 재무부(MoF)는 COVID19 전염병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국가 조세 수입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8월 국가조세수입 34억 5,608만달러 중 국내수입은 29억 9,878만달러로 7월 대비 6억 2,438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8월 세수는 202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총 조세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지역에서의 코로나 감염 사례증가로 인해 조세 수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세무 당국은 각 지역의 조세 징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조세 수입을 강화할 것이라 전함.

[Vietnam News, 9. 17]

▶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한국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화상 간담회

9월 14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는 베트남 총리 및 주베트남한국 대사 주재로 한국 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화상 간담회를 개최함. 이 간담회에서 팜 밍 쯔 총리는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원활한 투자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동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힘. 또한 총리는 주베트남한국 대사, 코참, 코트라를 포함한 각 기관 대표 및 한국 기업과 함께 한국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한-베트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할 것을 제안함. 이번 간담회에 베트남 대표로는 총리를 비롯, 기획투자부 장관 및 차관 등 8명과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지역 인민위원장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박노완 주베트남한국 대사, 코참, 코트라 그리고 한국 기업 대표 등 30명이 참석함.

[Vietnam News, 9. 17]



▶ HSBC: 2021년 베트남 경제 전망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제시

HSBC 베트남은 2021년 베트남 경제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1) 첫 번째 시나리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가 어려운 맥락에서, 백신 보급 속도와 효과에 따른 주요 수출 시장의 회복 및 경제 재개 정도에 따라 5%~5.5% GDP 성장률 달성

2) 두 번째 시나리오: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통제가 연장되는 맥락에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공급망 붕괴 위험도 가중에 따라 3.5%~4% GDP 성장률 달성

HSBC 베트남은 어느 시나리오든 경제활동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재개되어야 하며,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중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코로나19가 기업의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함에 따라 베트남은 기술 관련 제품의 중요한 공급망으로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함.

[VGP News, 9.14]

▶ 호치민 지하철 1호선,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로 재연기

호치민 1군의 벤탄 시장에서 시작하여 투득시 수어이 띠엔 테마파크까지 19.7km를 연결하는 호치민 지하철 1호선은 '21년 9월 8일 기준 전체 노선의 87.5%가 완성된 상태임. 그러나 호치민시 도시철도관리청(MAUR)은 올해 말까지 프로젝트가 91% 완료될 것이라 밝히는 반면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 이전까지는 완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발표함. 완공 지연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 19로서, 건설 근로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밝힘. 또한 예정된 해외 전문가 입국에 차질을 겪으며 공사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임. 한편, 호치민 1호선 프로젝트는 총 18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지하 3개, 지상 11개 등 총 14개의 정거장과 철도 노선이 있음.

[VN Express, 9.8]

▶ 베트남중앙은행, 개정시행규칙 공표, 부채 구조조정기간 6개월 연장

베트남중앙은행(SBV)은 2020년 3월 13일자 시행규칙 01/2020/TT-NHNN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2021년 9월 7일자 시행 규칙 14/2021/TT-NHNN을 공표함. 2020년 3월 3일자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용기관 및 해외은행 베트남지점이 부채상환 조건을 재구성하고, 이자 및 수수료를 면제 또는 축소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구조조정 기간을 유지한다고 되어있음. 기존 시행규칙은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일 이전까지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도록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면제 및 감면 범위를 수정함. 개정시행규칙으로 2020년 1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기간에 발생한 차입금상환에 대한 구조조정, 이자면제 및 감면, 원금상환 의무수수료 감면 등이 시행될 예정임.

[Nhan Dan, 9.7]



▶ 베트남, 2030년까지 2,320만 명의 중산층 인구가 추가 될 것

World Data Lab은 베트남에 2030년까지 2,320만 명의 중산층 인구가 추가 될 것이라고 보고함.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은 10년 동안 중산층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 그룹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7,580만 명), 필리핀(3,750만 명)에 이어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됨. 또한 Statista가 2021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중산층 인구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0.1%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음. World Data Lab 기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지출이 11달러 이상인 사람을 중산층이라 정의함.

[VN Express, 9.4]

▶ 2021년 1월~8월 수출 규모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베트남 통계청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2,125억 달러라고 발표함. 이 중 국내 기업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5%증가한 556억9,000만 달러, FDI 기업의 수출은 25.5% 증가한 1,568억6,000달러임.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한 622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중국(327억 달러, ↑ 19.8%), EU(261억 달러, ↑ 14.5%), ASEAN(184억 달러, ↑ 23.3%), 한국(139억 달러, ↑ 9.9%), 일본(135억 달러, ↑ 8.6%)이 뒤를 이음. 동일 기간 베트남의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2,162억6,000만 달러로 중국으로 부터 725억달러(↑ 47.1%)를 수입하여 최대 수입국이 됨. 2위 한국(346억 달러, ↑ 20.5%), 3위 ASEAN(282억 달러, ↑ 47.4%), 4위 일본 (145억 달러, ↑ 13.7%), 5위 EU(110억 달러, ↑ 17.1%), 6위 미국(104억 달러, ↑ 12.3%) 순임.

[베트남 정부포털, 9.1]

▶ LG 디스플레이, 베트남 하이퐁에 14억 달러 추가 투자

8월 31일, 하이퐁경제구역관리위원회는 LG디스플레이에게 14억 달러(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증명서를 수여함. 이번 투자액 유상조정으로 인하여 LG디스플레이의 하이퐁시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총 46억5,000만달러(약 5조4,000억원)가 되어 하이퐁시 최대 투자기업이 됨. 이와 더불어 LG디스플레이는 OLED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생산량을 월 960만~1,000만개에서 월 1,300만~1,400만개로 늘릴 계획임. LG디스플레이는 연간 약 6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LG디스플레이는 2016년 15억 달러 투자를 시작으로 베트남 하이퐁에 진출한 바 있음.

[NhanDan, 8. 31]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Ha Giang시 그린시티 가로등 입찰

☐ 9번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Ha Giang시 그린시티 가로등 입찰

발주처	○ 기관명 : Ha Giang 인민위원회 ○ 연락처 : +84-21-9386-3688
프로젝트	○ 현장위치 : Ha Giang성 Ha Giang시 ○ 규모 : 약 2.2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정부재원, ADB ○ 프로젝트 단계 : 입찰서류 접수 중 (10월 18일 마감) ○ 세부내용 - 240W LED 가로등 351세트 - 200W LED 가로등 128세트 - 160W LED 가로등 409세트 - 120W LED 가로등 514세트 - Electrical cabinets 및 Lighting control 장비 41 Cabinets

☐ 9번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발주처	○ 기관명 : Quang Tri성 인민위원회 ○ 연락처 : +84-233-3553-713
프로젝트	○ 현장위치 : Quang Tri성 ○ 규모 : 약 19.05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WB ○ 프로젝트 단계 : Pre-F/S완료, F/S 진행 중, 2022년 입찰 진행 예정 ○ 세부내용 - 구간 : Cua Viet Port(Gio Linh군) ~ Thanh An현(Cam Lo군) - 규격 : 길이 13.8km, 4차선, 설계속도 60~80km, Width : 20.5~25.5m



2021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가. 산업 특성

정책 및 규제

베트남 정부는 2014년 4월 11일 2030년 베트남 섬유산업 발전 방안(3218/QĐ-BCT)을 발표, 섬유산업 증진에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증진을 위한 정부의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2030년까지 섬유·의류분야 정책 방향

(고부가가치 전환) 섬유 및 의류 산업을 현대화·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도모, 단순한 원료의 가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으로 전환, 지속가능성 추구, 품질의 향상과 수출의 다변화를 보장하는 반제품 생산, 섬유·의류 수출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키우고, 국내 시장의 요구 강력한 지원 산업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원재료, 부자재 생산 및 제품 부가가치 제고, 혁신 기술 개발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환경 보호와 연계, 섬유·의류 발전 도모, 농업 및 농촌 섬유 공단 개발, 대도시 섬유·의류시장 발전 및 농촌 지역 공단 섬유·의류 기업 이전 촉진

(숙련 노동자 육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급 기술 보유 인재 육성, 기업가와 숙련 노동자 육성

(해외투자유치) 섬유·의류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약한 부분을 보완할 하이테크 섬유 기술 보유 해외 기업 유치

자료: 3218/QĐ-BCT

베트남의 2020년·2030년 섬유·의류 산업 세부 목표

지표	2020 년	2030 년	단위
수출액	US\$ 36-38 십억	US\$ 64-67 십억	US\$ 십억
제조업대비 비중	13-14%	9-10%	%
노동 인력	3,300,000 명	4,400,000 명	1,000 명
주요 생산품			
면섬유	15,000 톤	30,000 톤	1,000 톤
섬유, 합성 섬유	700,000 톤	1,500,000 톤	1,000 톤
방적사	1,300,000 톤	2,200,000 톤	1,000 톤
직물	2,000 백만 m ²	4,500 백만 m ²	백만 m ²
봉제제품	6,000 백만 m ²	9,000 백만 m ²	백만 m ²
현지화 비율	65%	70%	%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제품개발 계획 및 지역별 섬유·의류산업 분산 계획

베트남은 섬유·의류산업 제품 개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재단, 봉제, 포장 등 단순 제조에서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주문자생산(OEM), 자체상표생산(OBM) 등의 고 부가가치 산업 체제 구축 계획
- 신기술 섬유 제품, 의료용 섬유 제품 생산·수출 활성화 계획

또한 베트남은 2030년까지 북부 및 북부 산간, 동부 및 홍강 삼각주, 중부, 동남부, 메콩 델타 지역 등 7개 지역별로 원자재 재배 지역과 가까운 섬유산업공단을 개발하여 노동력과 교통인프라를 재정립하는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지역별 섬유·의류산업 분산 계획 (단위: 현재 운영 중인 기업 비율, %)



자료: 3218/QD-BCT,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섬유·의류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 및 분야별 FDI 규모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기업들이 베트남 영토 내에서 조립·생산 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공급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일부를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SI)으로 규정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화, 섬유, 섬유 생산에 대한 지난 10년 동안의 외국인투자(FDI)는 전체 외국인 투자규모인 110억 달러의 50%를 넘는 56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의 효성그룹은 터키 투자자와 합작하여 6억 6000만 달러 규모로 동나이 산업단지에 섬유 생산 및 가공 공장을 세웠으며, 대만의 Polytex Far Eastern Co., Ltd.는 2억7400만 달러 규모로 투자한 바 있다. 다만, 원단 염색과 마감, 염색 화학제품 분야에서 10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규모는 7억3,000만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6%에 그쳤다. 베트남 섬유·의류 지원산업 분야의 FDI 기업의 수출규모를 보면, 면화 및 섬유 제조기업의 수출이 주를 이뤘다. 2019년 기준 섬유·의류 지원사업 전체 FDI 기업의 수출규모는 전체 섬유·의류 분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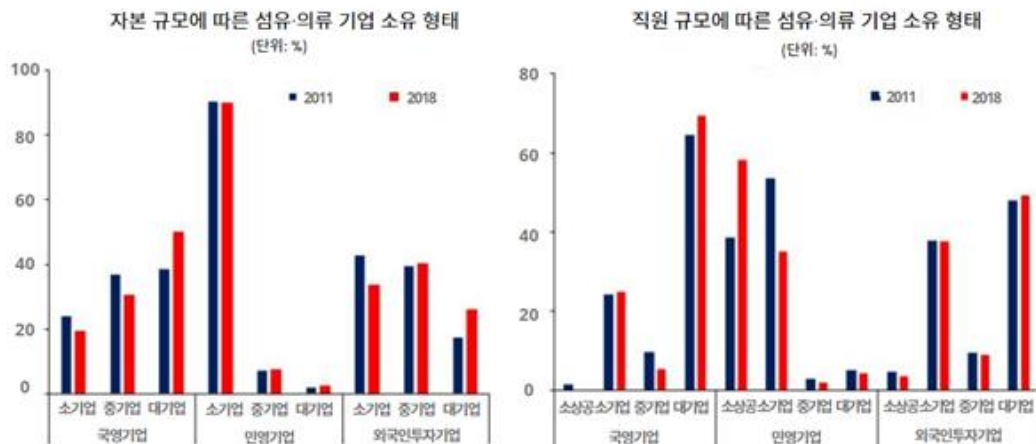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 구조

메콩-중국 전략연구 프로그램(MCSS), 베트남 국립농업아카데미(VNUA) 및 ActionAid(AAV)가 발표한 2020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섬유관련 기업 수는 2011년 6,898개 대비 2018년 1만1,95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원단 기업은 37%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 FDI 기업은 전체 기업의 11.7%에 불과했지만 자본 규모는 업계 전체의 63%, 수출 규모는 50%를 차지했다.

섬유·의류 분야 자본·직원규모에 따른 기업 소유 형태

베트남의 섬유·의류 분야 중소기업 비율은 2011년 24%에서 2018년 19%로 5%p 감소 했으나, 대기업 비율은 2011년 39%에서 2018년 50%로 11%p 증가했다. 섬유·의류 분야의 중소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은 2011년 43%에서 2018년 34%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은 2011년 18%에서 2018년 26%로 8%p 증가했다.

자본/직원 규모에 따른 베트남 섬유·의류 기업소유 형태



자료: MCSS - Vietnam Textile and Garment : The impact of Covid 19 and Beyond (2020.6)

베트남 섬유·의류 기업 공급망

베트남 섬유·의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섬유·의류 업체 중 85%가 봉제가공업체이다. 이 중 CMT방식 65%, OEM방식 35%, ODM 방식이 5%를 차지한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원단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낮아 해외 수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수용 의류 생산에 주로 쓰인다. 베트남 생산 원단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05년 해외 원단 사용 비율은 70%였으나 2011년 55%로 감소했다가 2019년에는 약 70%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 말 베트남 섬유·의류 업계 회복 요인은 개인보호장비(PPE) 수출

Forbes는 베트남의 섬유·의류 기업이 2020년 한 해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전역에 약 12억개의 마스크를 수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 세관총국은 2021년 1분기 수출규모가 2020년 1분기 대비 18.3% 증가한 이유로 개인보호장비(PPE)주문 급증을 꼽았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개인보호장비가 중국·미국에서 제조되었으나, 전세계의 개인보호장비 수요 증가로 인하여 관련 제품의 베트남의 생산 및 수출이 급증하게 되었고, 베트남 섬유·의류 업계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최신 기술 동향

렌징 그룹, 탄소-제로 TENCEL™섬유 개발 생산으로 섬유·의류분야 ESG 책임에 앞장

오스트리아의 FDI 기업인 렌징 그룹(The Lenzing Group)은 베트남 Lenzing 공장에서 TENCEL™(텐셀) 리오셀과 모달섬유 생산에 성공했다. 렌징 그룹은 탄소중립성 선도 글로벌 프레임워크인 'The CarbonNeutral Protocol®(카본뉴트럴 프로토콜)'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개발된 탄소-제로 TENCEL™ 브랜드 섬유로 섬유산업용 CarbonNeutral®(카본뉴트럴) 제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노력

지속가능한 패션이란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섬유·의류를 생산·소비 및 재활용 하는 것이다. UN 지속가능한 패션연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패션 산업 규모는 약 2조 4,000억 달러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를 폐기해 손실되는 규모는 매년 약 5,000억 달러에 이른다

나. 산업 수급 현황

시장규모 및 전망

베트남 섬유협회(VITAS)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 수출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2019년 390억 달러 대비 23.5% 감소한 298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베트남 섬유협회(VITAS)는 2021년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액 목표를 2019년과 동일한 390억 달러로 설정했지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베트남 섬유·의류 분야 수출입 동향

2019년 베트남의 섬유·의류 분야는 2018년 대비 수출입 규모가 각 7.5%, 2.2%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15.7% 증가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반면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수출입규모와 원부자재 수입규모, 무역수지 모두 전년대비 감소를 보였다. 2020년 베트남의 섬유·의류분야 수출규모는 약 2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6% 감소했으며, 수입규모는 약 2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82억 달러로 전년 166억 달러 대비 82.7% 대폭 감소하였다.

섬유·의류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섬유·의류 분야의 30년간 외국인직접투자는 195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464개의 기업, 총 등록 자본 48억 달러로 30년간 섬유·의류 분야 누적 투자규모와 기업 개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대만은 132개 기업을 등록하고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2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홍콩과 중국이 대만보다 많은 147개, 197개 기업을 등록하였으나, 총 자본금은 각 24억 달러, 21억 달러로 3, 4위를 기록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70개의 기업을 등록하고 16억 달러를 투자하여 5위에 올랐다.



섬유·의류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인센티브

베트남 통계청은 2020년 말까지 섬유·의류 분야 관련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총 1,283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의류 제조·봉제기업은 882개(69%)이며 2015년에 발효된 섬유·의류 분야 지원산업발전 시행령(111/2015/ND-CP)에 해당하는 면화공공, 방직, 방조, 염색, 섬유·의류 산업 기계 및 부품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은 301개(31%)에 달한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섬유·의류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누계는 22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59%인 130억 달러는 의류 생산기업에 투자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110억 달러로 2015년 한 해 등록된 신규 자본금은 10년만의 최대 규모인 23억9000만 달러에 달했다.

다. 진출 전략

SWOT 분석

베트남은 다른 공산국가에 비하여 안정된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FDI를 유치하는 강점이 있다. 베트남인의 평균 소득과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내수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반 인프라와 높은 대외교역 의존도, 고급 기술인력 부족 및 지원산업 취약은 베트남 섬유·의류분야의 약점으로 꼽힌다.



강점 STRENGTHS

- 정치적 안정성
-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
- 평균소득과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
- CPTPP, EVFTA로 인한 수출기회 증가



약점 WEAKNESSES

-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반 인프라
- 높은 대외교역 의존도
- 고급 기술인력 부족
-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ies)취약



기회 OPPORTUNITIES

- China+1, +2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 관심 증가
- 글로벌 통상저변 확대
- 정부주도의 4.0 디지털 경제 구축 노력
- 민관협력 프로젝트 수요의 증가
-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투자 증가



위험 THREATS

- 코로나19로 인한 조업 차질 초래 및 내수경기 악화
- 투자 과밀에 따른 투자진출비용 상승
- 경쟁국의 베트남 진출로 인한 수입품 과다 경쟁
-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인프라 개발 여건 악화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섬유·의류 시장 성장 기대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로 인해 2030년까지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은 최소 6%에서 최대 14%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 된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 회장인 Vu Duc Giang은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EVFTA, RCEP 및 UKVFTA가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발전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에서 한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섬유·의류를 생산하더라도 유럽연합국에 특혜 세율로 수출이 가능한 점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UKVFTA로 인한 영국 수출 기회 증가 기대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UKVFTA)은 베트남 의류 섬유 및 신발 기업에 수출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산업부는 영국의 연간 수입액에서 베트남산 수입품의 비율은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베트남 기업은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브렉시트 이후 EVFTA가 영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UKVFTA를 활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불가피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베트남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2021년 8월 4일 기준 조업을 중단한 섬유·의류 기업은 전체의 30~35%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혔다. VITAS 회장인 Vu Duc Giang은 많은 공장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여파로 오랫동안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이며, 각 기업들은 3교대 근무를 실시할 제반 여건과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베트남 남동부, 남서부 지역 섬유·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서 VITAS는 섬유·의류기업의 백신 접종 가속화 및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제안을 총리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8~12월까지 5개월동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통제되었을 경우에만 다시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2021년 2~3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섬유·의류산업의 공급망 붕괴는 중기적으로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호치민 근교에 근무하던 베트남 남부 타 지역 출신의 섬유·의류기업 종사자들이 조업 중단에 따라 귀향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업이 재개된다고 할지라도 호치민의 주요 섬유·의류 생산 기업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상반기 190억 달러를 수출하고 2020년 상반기 대비 20%의 성장을 보이며 낙관했던 베트남 섬유·의류 분야가 하반기 안에 기존 수준의 조업 및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억제에 따라 향후 조업 및 수출 재개를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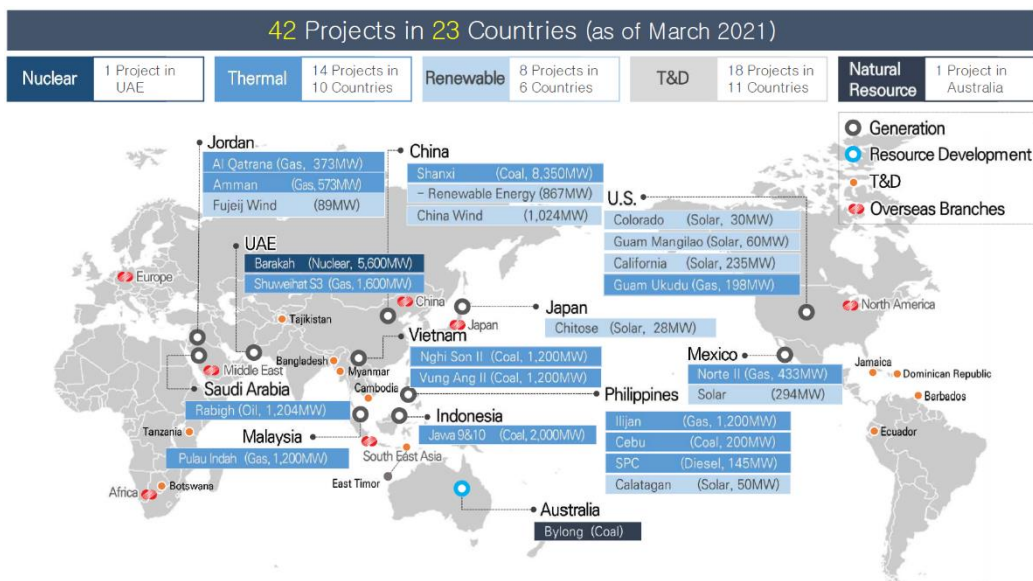




한국전력(KEPCO) 베트남 사무소

□ 한국전력은?

- 한국전력은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1898년 한성전기 설립을 시작으로 123년이라는 세기의 역사를 가진 한국 대표기업입니다. 또한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내외 에너지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 한국전력은 국내 전력수요 성장 둔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전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995년 필리핀 말라야 중유발전소 성능복구·운영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발전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풍부한 사업수행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 우수한 해외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민자발전사업자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 2019년말 해외사업 관련 연간 매출액은 약 2.3조원으로, 해외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한국전력의 재무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업 수행으로 민간 건설사 및 기자재 제작업체, 국내 금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전력은 전 세계 23개국에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송배전 등 42개 프로젝트(2021년 3월말 기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해외사업 수주 및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청정화력, 신재생 등 저탄소·고효율 중심의 사업 확대와 송배전 기술 경쟁력을 활용한 그리드·신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친환경 유틸리티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한국전력 베트남사무소는?

- 한국전력은 2004년에 하노이지사를 개소한 이래, 지난 17년간 동남아지역 전력시장 개척 및 발전사업 개발을 베트남 정부 및 베트남전력공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업 수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BIXPO 행사에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전력공사 주요인사를 초청하고, 한국전력의 인재개발원에 전력분야 교육을 개설하여 한국 전력산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양국 전력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 시범사업을 위해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MOU를 체결하고, 한전으로부터 K-SEMS 설치업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9 BIXPO 베트남전력공사 방문단



K-SEMS 시범사업 협력 MOU(베트남 산업무역부-한국전력)

□ 한국전력이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향후계획은?

- 한국전력은 2017년 타잉화성(Thanh Hoa)의 응이손2 석탄화력사업(1,200MW), 2019년 하띤성(Ha Tinh)의 봉양2 석탄화력사업(1,200MW)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응이손2 석탄화력사업은 2022년 1월 1호기, 2022년 7월 종합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봉양2 석탄화력사업은 연내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 또한 한국전력의 해외사업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저탄소·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향후 신재생·가스복합 등 저탄소·친환경 사업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에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Gas to Power 사업개발 및 수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까나 Gas to Power사업 관련 다투언성 면담



봉양3 Gas to Power사업 관련 설명회



고상구 회장의 베트남 비즈니스 이야기

1탄. 준비 4개월만에 백화점 운영을 시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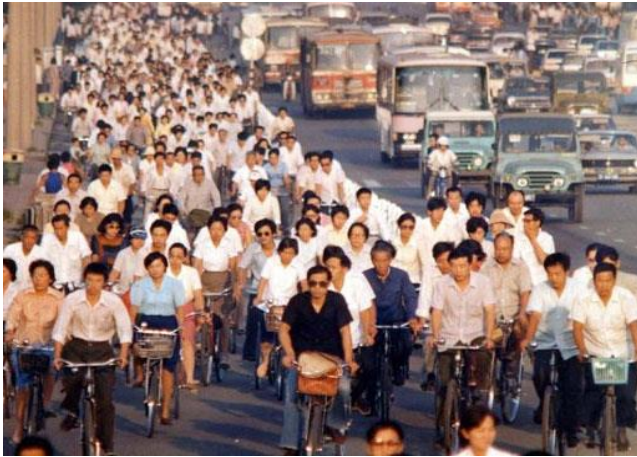
K-Market 고상구 회장

베트남에 훌쩍 빠져들게 한 그 짜릿한 첫인상

나는 2002년에 처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와 보았다. 내가 지금 유통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쉽게 상상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당시 악세사리 사업을 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헤어핀이나 미용재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가업이었는데 비즈니스 제안이 베트남쪽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베트남땅을 밟게 되었다.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2002년 6월 베트남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그 때는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도 구분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지인이 베트남 하노이에 백화점을 짓는데 같이 가보자고 하여 백화점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지역이 현재의 장보(Giang Vo)거리였다. 그 당시 그 곳에 띠엔람장보(Trien Lam Giang Vo)라는 명소가 있었는데 당시 유명 전시회는 다 그곳에서 할 만큼 하노이에서 유일한 큰 전시장이었다. 아무튼 장보거리 코너에 있는 백화점 공사현장을 갔는데 지인이 나에게 덜컥 백화점 운영을 제안하는게 아닌가. 백화점을 거의 짓기는 했으나 입점도 받아야 하고 운영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다.





중국 북경 자전거 행렬



베트남 하노이 오토바이 행렬

아무것도 모르는 베트남 땅에 와서 장보 대로 앞을 보는데 그때 문득 내 눈앞에 오토바이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나에게서 정말 장관중에 장관으로 느껴졌다. 그 모습은 바로 1990년 즈음의 중국의 모습과 같았다.

천안문사태가 끝난 이듬해인 1990년에 나는 중국 북경에 갈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북경에 우리 한국기업이 단 1개 밖에 없을 때니까 참 옛날일이다. 그 공장은 럭키금성(현LG)이 운영하던 완구공장(중국봉제공장과 합작)으로 기억한다. 어마어마했던 중국봉은 그 이후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대형광장을 가던 자금로를 가던 어마어마한 자전거 행렬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곤 했다.

단지 오토바이와 자전거라는 수단만 달라졌지 1990년의 중국과 2002년의 베트남은 똑 같았다. 무한한 에너지와 열망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1990년 이후 중국은 단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었다는 것이 떠오르며 “아! 이제는 베트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순간 베트남에 훌쩍 빠져들고 말았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고들 하는데 나에게서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한국 백화점, 코리아타운 개점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백화점 운영에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한국 신세계백화점에서 구매과장으로 일하던 지인을 설득해 베트남으로 같이 가자고 졸랐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베트남으로 가자고 하니 그 지인의 부인은 절대반대에 나섰다. 하지만 그 지인도 베트남에 흘러서였을까? 결국은 내 제안을 승낙하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베트남 운영을 맡기로 한 것이 6월인데 개장일은 10월로 이미 정해져있었다. 4개월만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세계백화점 출신 지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개장준비를 하고 나는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소싱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나도 곧 베트남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백화점 건물은 아주 넓은 2층짜리 매장이었고 이름은 ‘코리아타운’으로 정했다. 말 그대로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인 한국촌을 만들고 싶었다. 4개월동안 나와 모든 직원들은 정말 바쁘게 준비했다.

나름대로의 판매 계획도 세웠다. 주변의 제안을 고려해 먼저 한국의 이월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기로 했다. 베트남의 구매력을 감안한 선택이었다. 상품의 종류는 아주 다양했다. 신사복, 숙녀복, 캐주얼복, 란제리, 아동복, 유아복, 생활용품, 침구류, 소형가전, 신발, 인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삼이 포함된 이유는 한국식품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우니 딱 한가지의 대표상품으로 승부해보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넓은 백화점 매장을 채우기 위해 전국을 많이도 돌았다. 그 당시 한국은 홈쇼핑비즈니스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라 지금과는 다르게 판매재고가 많을 때였다. 이런 홈쇼핑 재고나 이월상품을 찾기 위해 곤지암, 대구(침구류), 하남(양복) 등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창고에 있는 남은 재고들을 구해서 베트남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6월에 백화점 운영 제안을 받고,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준비를 한 끝에 10월 17일에 드디어 개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이 사업을 시작한 후 딱 6개월만에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쉽게 생각하면 파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파산은 절대 아니다. 나의 결정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즘 말로하면 ‘손절’이다. 그 당시 투자액이 23억원 가량이었는데 나는 이 결정으로 이 중에 3억원 가량을 건지게 되었다.



2002년 당시 ‘코리아타운’ 백화점



여성복은 대실패, 남성복은 대박

잘 안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우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준비를 하였기에 제대로 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여성복의 경우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베트남여성들과 한국여성들간의 체형 차이가 주된 이유였다. 지금의 베트남 여성들이야 체격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 여성들의 허리사이즈는 22~23인치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24인치 여성복도 찾기 힘든 사이즈였고 대부분의 바지가 25인치 이상 사이즈였다. 나름 작은 사이즈의 바지를 찾으러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밀리오레 등을 열심히 다녔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다. 또 청바지의 경우 당시 베트남에서는 밀워가 짧은 스타일이 유행했는데 그와 달리 한국은 밀워가 긴 바지를 입다보니 그것도 큰 차이였다. 결국 베트남 여성 손님들이 와서 예쁘다며 반색을 하다가도 한번 입어보고는 어색하다며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았다. 마네킹에 입혀진 옷이 예뻐 구매해갔다가 다시 반품하러 오는 분들도 많았다.

하지만 남성정장은 아주 인기가 많았다. 한국에서 가져온 좀 작은 사이즈의 정장들이 베트남 남성들에게 잘 맞았던 것이었다. 여성복과는 다르게 체형차이에 따른 문제가 없었다. 당시에는 베트남 부자들이나 정부 고위공무원들도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닐 때였다. 그만큼 사람들이 검소하기도 했고 외양에 신경쓸만한 여력이 없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베트남이 경제개방을 하고 많은 외국투자기업과 글로벌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베트남의 고위공무원이나 기업인들도 자연스럽게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과 만나는 자리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베트남 남성들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양복을 입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덕분이었는지 내가 한국에서 들여온 양복들은 매장에 걸리는 족족 판매되었다. 급기야 단골손님이 생기며 예약주문까지 들어올 정도였다. 나는 지금도 청년강의 등 외부강의를 할 기회가 생기면 "지금 양복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하곤 한다. 나는 베트남 하노이내 명품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입곤 하는데 아직도 한국에 비교하면 수준차이가 크다고 느낀다. 잘만 준비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때 백화점 장사가 잘 안 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잘 됐던 몇 가지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복이었다.

<다음호에 2탄이 이어집니다>



민문기 상무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민문기 상무관



민문기 상무관님 반갑습니다. 베트남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8월말에 새롭게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부임한 민문기 상무관입니다.

저는 2006년 하노이, 2015년 호치민을 공무상 이유로 방문한 경험이 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고,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베트남의 생활이나 문화는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개월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국기업, 공공기관, 베트남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트남에서 적응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하노이에서 약 9천여개의 한국 기업들을 위해 앞으로 3년간 근무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우선은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기업인분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이를 해소해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생각입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상무관으로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무역,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무역정책과, 수출입과 등에서 일하면서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마케팅, 무역보험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업무도 수행하였고, 지역경제총괄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 업무도 맡았습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전자전기와, 소재부품총괄과, 뿌리산업(금형, 주조 등) 및 화학산업 분야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 수출규제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자동차에 들어가는 ‘탄소섬유 국산화’ 지원, 금형 및 주조 등 뿌리기업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융·인력·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뿌리산업 마스터 플랜’ 수립, 소재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최적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무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무관은 한국과 베트남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산업과 에너지분야 경제협력 방안 마련, 통상 현안해소, 진출기업의 현지 리스크 해소 등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 2023년 한국-베트남간 교역목표 1,000억불 달성, △ 베트남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수주 지원, △ 베트남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우리 소재 부품 기업들의 진출 지원 △ 베트남 정부의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대응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진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혹은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저는 부임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9.14(화) 베트남 팜핑썬 총리 주재로 열린 베트남 정부와 진출 한국기업간 간담회를 준비하고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호치민·동나이 등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한 남부지역 진출기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우 숙박, 시설, 생산을 한 장소에서 해결해야 하는 3 tai cho 정책으로 2개월 넘게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였고, 이동허가증 발급 어려움으로 수출입 물류 어려움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지연에 따른 건설공사 중단, 세금 및 금융 관련 애로도 논의되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이날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부처 장·차관들에게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물류분야의 경우 교통운송부 및 관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가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애로해소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실제로 9.17(금)에 교통운송부 장관주재로 물류관련 회의가 소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지만, 베트남 정부도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베트남 코로나 정책이 성과를 보여준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도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공장에 기숙사 설치를 확대한다거나 스마트공장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기업인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려움을 듣고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임하신 포부와 혹시 재임 중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베트남내 외국인 1위 투자국이며, 베트남은 우리에게 4위의 교역국가로, 아세안 국가중 대표적인 경제협력 성공모델 국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등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재부품 기업들도 베트남 진출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미중 무역분쟁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제조 생산기지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를 기회삼아 지난해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RCEP, EU 및 영국과의 FTA 체결 등 통상협정을 통해 개방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투자법, PPP법 개정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베트남 로컬기업들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어, 기업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베트남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유럽 등 다양한 나라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출기업들이 그간 베트남에서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서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적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베트남 노조설립에 관한 법령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사례) 甲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제조기업의 현지 벤더업체이다. 베트남 법인 내에 현재 사내 노조가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사측에서도 최대한 노조와 협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여 그동안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 온 편이다. 최근 코로나 이후 甲의 법인장 및 주요 한국관리직원들의 퇴사 및 한국 복귀에 따라서 베트남 현지법인의 관리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신규 부임한 베트남 법인장은 다소 생소한 베트남 노조에 관한 현지 법규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질의하였다. 금번 칼럼에서는 지난번 기고문에 이어서 베트남 노조 관련 법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외국투자자로서 베트남 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베트남 노동법 및 각종 관련 노무법령상 규정 준수의 부분이다. 특히 한국기업은 제조업의 현지 진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베트남 직원들에 대한 노무관리가 필수적인데, 아직도 많은 한국업체의 경우 정확한 노동법상 규정을 주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문의 사항 중 많은 업체에서 혼선을 가지고 있는 사내 노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짚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트남 노동관계법상 노조 설치 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직원수에 따라 노동조합 설치를 강제하는 법규정이나, 미설치시 과태료 혹은 벌금 또한 없다. 노조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베트남 노동법 제8장 및 2012년 제정된 노조법에 규정이 되고 있다. 베트남 노동법상 노조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사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노동법상 노조의 의무적인 설치 조항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원 수에 따른 노조 설치의 의무 또한 당연히 없는 것이다.

다만, 노동법 외에 노조법에서는 노조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결성,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노조 설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베트남총노조정관 제15장에 의거하여(기업 내에 최소 5인 이상 근로자가 결성하여 자발적으로 노조설립의 신청하는 경우) 상급노조기관에서 해당 신규 노조 설립 절차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인의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설립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거나, 미설치에 따른 페널티 등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조설립을 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관련법상 사내 노조 설립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 절차를 통하여 진행이 된다.

- 1) 베트남총노조 회원 최소 1인 또는 노조 설립을 희망하는 최소 3인의 근로자가 노조설립추진위원회 결성하여 상급 노조 기관의 지원 하에 컨퍼런스 주최
- 2) 노조설립추진위는 노조설립 신청서류(당해 시점에는 최소 5인 이상의 발기 근로자 필요)를 상급 노조 기관에 접수
- 3) 상급 노조 기관 심사 및 설립 승인
- 4) 노조 인감 발급

그렇다면, 노조 설치 시 사용자가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노조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법률상 정한 바에 따라서 노조의 기능과 권한 및 당사자간 의무 이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노조 설치, 참여 및 노조 운영이 원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노조와의 대화, 협상, 기타 노조 규정이 민주적으로 운용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권한과 의무와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 노조의 의사를 수렴하여야 한다.
- 노동법상 노무분쟁 발생 시 노조와 협력하여야 한다.
- 노조비(trade union funds)를 동법 제 24,25,26조에 의거하여 정히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노조 설치 단계에서는 역할이 없으나, 노조 설립 이후 해당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설치되고 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운영비용에 관한 법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노조의 유무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베트남 내 기업은 노조비(trade union funds)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노조비는 기본급여(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기본급여)의 총 2% 상당하는 금액으로 노조법 제5조 및 시행령 191/2013 제5조상 납부하도록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모든 기업에서 노조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비는 매월 노조 또는 상급 노조 기관(사내 노조가 없을 경우)으로 지급된다. 만약에 사용자가 노조비를 정히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금의 12~20%가 페널티로 부과되며, 해당 페널티액은 총 7,500만동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미납상태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소하여야 한다.



베트남 사내 노조 관련하여 한국업체들이 주지할 만한 팁은 무엇이 있을까?

실무상 사용자는 노조 설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용자는 노조 설립 시 어느 근로자가 노조구성원으로 참여할 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 설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급적 사용자측에 우호적인 근로자를 노조 구성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급적 다른 업무부서에서 골고루 노조원이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 설립 시 노조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상 고문 역할 수행도 가능하므로, 향후 기업의 파업 등 노무분쟁을 예방하는데에 오히려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적법한 파업을 위해서는 노조운영구성원의 최소 50% 이상 승인이 요망되므로, 사용자는 노조에 대한 용이한 통제를 차원에서 사용자측에 우호적인 노조구성원이 최대한 노조운영구성원으로 포함되어 활동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사용자측에 유리한 노조를 구축해간다면 오히려 기업의 노무관리 및 운영 전반적으로도 현지 직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조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측에 불리하다는 선입견을 다른 견지에서 볼 수도 있다.

또한 노조비 명목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비용 또한 노조를 통하여 사내 현지 직원들의 복리 및 기타 사기 진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무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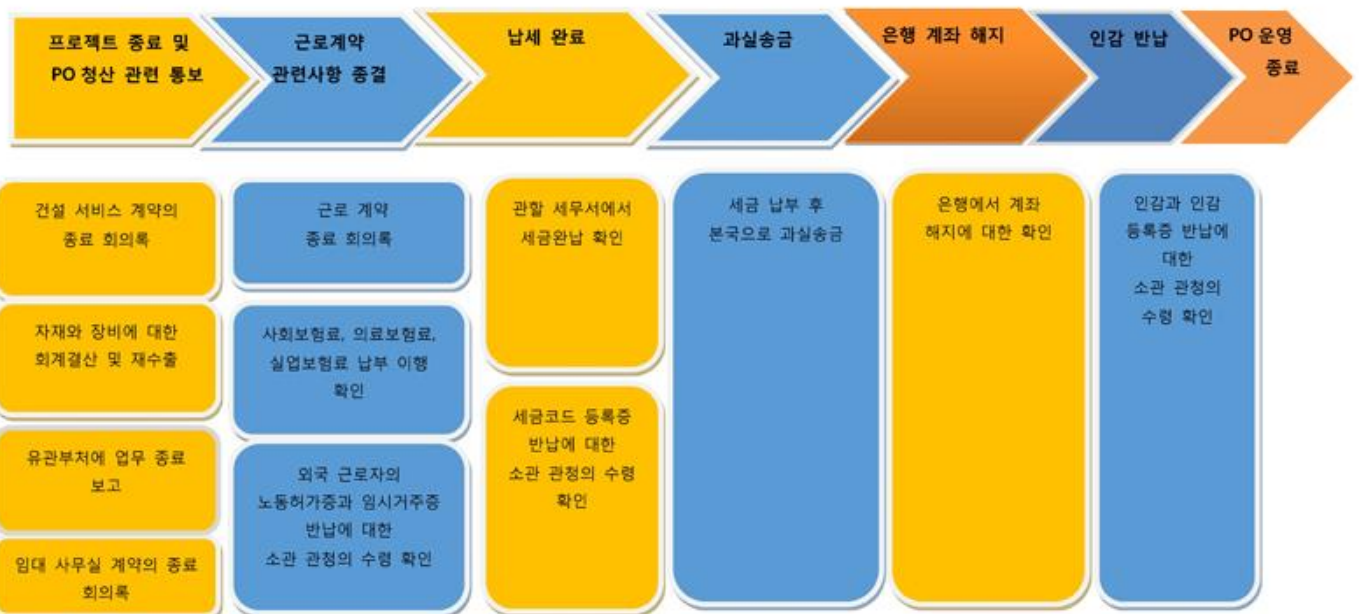
프로젝트 오피스 청산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미국 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일반적으로 외국인(외국 회사 포함)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시공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그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한정해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 시공 허가(즉, 도급자 허가(Contractor Permit))를 받아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다[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라고 부르며 PO,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Operational Office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단일 프로젝트만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청산되어야 한다. 즉, X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발급받은 X 도급자 허가도 Y 프로젝트는 수행할 수 없으며 Y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Y 도급자 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X 프로젝트와 Y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되면 X 프로젝트 오피스와 Y 프로젝트 오피스를 각각 청산해야 한다. 가끔 프로젝트 오피스를 법인으로 전환 하거나 반대로 법인을 프로젝트 오피스로 전환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둘은 다른 종류이므로 전환할 수 없다. 프로젝트 오피스의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PO 청산 절차





프로젝트 종료 및 PO 청산 관련 통보

외국 계약자(프로젝트 오피스)와 다른 당사자(예: 투자자, 주 계약자, 하도급 계약자 등) 간에 계약된 업무와 기타 의무사항을 완료한 후, 관련 계약을 종료한다. 사무실 임대계약 등 프로젝트 오피스와 관련된 모든 계약도 청산하고 외국 계약자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한 장비와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재수출한다. 건설부, 재정부, 산업무역부, 은행, 세관 등 여러 관련 기관들에게 프로젝트 종료를 통보해야 하고 운영보고서, 계약 청산 관련 회의록 등 청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아 필요한 서류들은 청산 예정 시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프로젝트 오피스 운영 과정에 파트너나 다른 서비스 취급자와 체결한 계약서들의 베트남어본은 평소에도 정리해 보관하고 자재와 장비의 수입·회계자료도 잘 보관해두면 프로젝트 오피스를 청산할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근로계약 관련 사안 종결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의 급여를 모두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만약 미납된 사회보험료, 실업 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이 있다면 납부하고 관할 기관에 종료를 통지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 허가, 비자 및 임시거주 담당 기관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발급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을 반납한다.

납세 완료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납세와 기타 재정적인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단,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한 외국 도급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소득세의 납세 결산을 직접 하지 않음). 모든 세금을 낸 후,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세금 코드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반납한다.

청산 절차 중 세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세금 완납 증명서 발급에 종종 수개월이 걸릴 만큼 세금 완납 증명서를 쉽게 발급해주지 않는다. 그와 관련해 평소에 회계 증빙서류들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고 담당 공무원과 미팅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지에서 그것을 처리할 담당자를 정해두어야 할 필요도 있다.

과실송금(果實送金)

기본적으로 세금 납부 후의 이익은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세무서에 이익 사항을 통지하고 은행 송금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송금하게 된다.

은행 계좌 해지

납세와 과실송금 등 프로젝트 오피스 계좌를 사용해야 할 업무를 모두 완료한 후, 은행 계좌를 해지한다.

인감 반납

인감 등록필증과 인감을 반납하고 인감 반납확인증을 받는다. 단, 프로젝트 오피스를 청산할 때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으므로 인감 반납은 프로젝트 오피스 청산 절차에서 맨 마지막에 하기 바란다. <끝>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용 계좌 안내

신한은행 S&T센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용하는 계좌의 종류와 각 계좌별 특징, 이용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이 이용하는 계좌는 자본금 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와 일반 계좌로 나눌 수 있고, 일반 계좌는 보통 예금(Demand Deposit Account)과 정기성 예금(Term Deposit)이 있다.

역외 계좌

우선 현지법인 설립 전 자금 사용을 위해 개설하는 역외 계좌는 현지법인이 아닌 외국인(한국인 주주) 또는 외국법인(모기업) 명의의 계좌이다.

현지 법인이 아닌 사무소 형태는 베트남에서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역외 계좌 형태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역외계좌를 통한 거래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송금이 불가능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신청을 하고 송금 증빙서류를 지점에 송부한 후 지점에서 송금을 취결하는 방식으로 송금이 실행된다.

또한 현재 법인 설립 전 역외 계좌 사용 자금은 향후 법인 설립시 자본금 인정에 대해 회계사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을 위해 사용된 자금에 한해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회계사 상담을 통해 자금 증빙 서류 등은 보관하여야 한다.

[역외 계좌 개설 필요 서류]

모기업 준비서류	• 영문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Power of Attorney(위임장)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문서만 인정 ※ power of Attorney(POA) : 은행 제공 양식 사용 (사용인감계 별첨), 원본 제출 (공증 및 인증 불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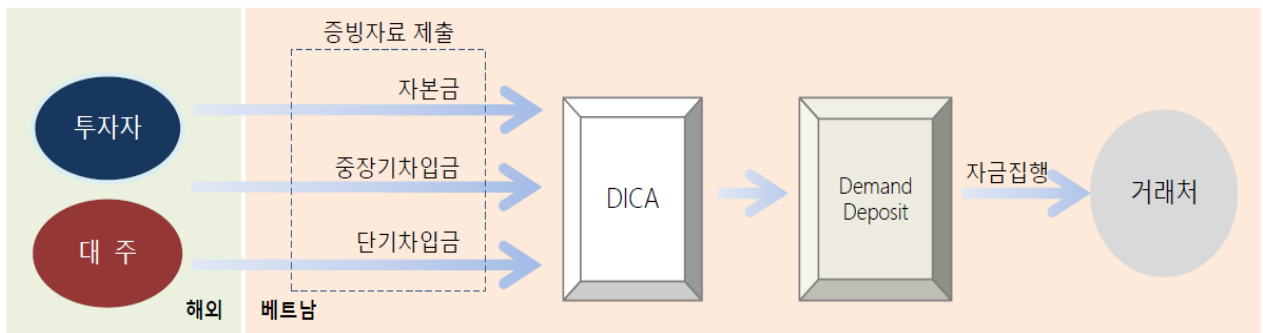


자본금 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 DICA)

외투법인의 자본금 수취 및 해외 차입금을 수취하는 자본금 계좌는 외국 투자 법인의 필수 계좌로 회사당 1개 계좌를 운용하며, 자본금 및 차입금 입금 시 관련 절차 이행 후,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회사 청산 및 차입금 상환 시 본 계좌를 활용하여 업무 처리를 진행해야한다.

[자본금 계좌의 자금 흐름]



직접 투자 계좌인 자본금 계좌의 개설을 위해서는 기업 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 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Seal 증명서, 정관, 대표이사 내점 등 예금 신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므로 은행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다.

현지법인 설립 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 준비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외국환거래 업무 인가를 받은 은행에 외화표시 계좌(역외 계좌)를 개설하고, 사전 투자 비용을 예치할 수 있다. 사전 투자 비용을 역외계좌에 예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지출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현지 법인 설립의 불발 또는 거래 해지가 될 경우, 역외 계좌 예치금은 다시 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당초 사전 투자 비용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베트남 통화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전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해외송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본금 계좌는 1기업 1개만 가능하다. 은행에서는 기업의 타행 직접투자계좌 유무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계좌가 개설될 우려가 있으나 복수 은행을 통해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에 과태료를 내야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1개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직접 투자 계좌의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 계좌(보통 예금 / 정기성 예금)

자유 입출식 예금인 보통 예금은 카드 결제 계좌 기능 및 거래처 당타발 송금시 이용을 하게되며 세법상 2천만동 이상의 거래는 은행 거래가 필수이다.

정기성 예금은 최소 1주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자금을 예치할 수 있으며, 만기시 재예치도 가능하다. 적립식 예금의 경우에는 금리 하락기에 금리를 확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Anti Dollarization 정책으로 미 달러 예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리를 0%로 정해놓고 있다.

구분		주요 기능	특징
자본금 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근거법령 : Circular 19]		• 외투 법인의 자본금 수취 • 단기, 중장기 해외 차입금 수취	• 외국 투자법인의 필수 계좌 • 자본금 및 차입금 입금 • 회사당 1개 계좌 운용 • 자본금 및 차입금 입금시 관련 절차 이행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일반 계좌	보통 예금 (Demand Deposit Account)	• USD / VND 등 자유입출식 예금 • 법인카드 결제 계좌 가능 • 국내외 거래처 송금시 이용	• 유동성 예금으로 저금리 상품 • 세법상 2천만동 이상의 거래시, 은행거래 필수
	정기성 예금 (Term Deposit)	• 기간 : 예금 최소 1주 ~ / 적금 최소 6개월 ~ • 자유 적립식 적금도 가능	• 만기시 자동 재예치 기능 보유 - 재예치시 원리금 재예치 선택 가능 • 적립식 예금(적금)의 경우, 금리하락기에 금리를 확정시킬수 있는 장점 보유 • 현재 Anti Dollarization 정책으로 미 달러 예금에 대한 시중금리 0% 적용



베트남내 CSR활동 동향 및 시사점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요약 및 시사점

○ 활발한 CSR활동으로 '한국은 베트남 경제성장의 동반자'라는 인식확립에 기여

- 베트남 진출 초기에서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활발한 CSR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지역사회, 베트남 정부 등 현지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

○ 2010년대 후반(2016~2021) 이후 우리 기업의 CSR 활동 변화

- 2010년대 후반(2016~2021) 이후, 단기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성과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해가면서 장기적으로 CSR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변화1), CSR을 뛰어넘어 기업과 사회의 공유 가치 창출(CSV)을 도모하는 사례가 발생하며(변화2), 산업육성·기술지원 등 정책협력강화에 기반을 둔 활동(변화3)과 NGO 등과 연계를 강화(변화4)하는 변화가 나타남
- 현지 사업장 주변의 지역사회 현안해결위주(주거, 식수, 교육 등)의 사업에서 벗어나 사회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환경, 의료 관련 사업도 늘어나고 있음

○ 코로나사태로 인해 CSR활동 동력 약화 우려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진출기업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규투자 조차 축소하는 경향을 보임
- CSR집행자금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등은 백신펀드 등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다른 CSR활동에 대한 여력을 상실한 경우도 상당

○ 진출기업들의 지속적인 CSR활동 확대 및 개선노력이 필요

-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빈부격차, 환경문제 등)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베트남내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음
- 베트남진출 글로벌기업은 글로벌 CSR전략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베트남정부 혹은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베트남내 CSR활동 동향 및 시사점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내 보고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최근 베트남 진출 섬유 의류 기업 현황과 대응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요약 및 시사점

□ 베트남의 주력 수출산업인 섬유 의류 산업

- 베트남의 섬유 의류 산업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섬유 의류 산업 수출의 70% 이상을 FDI 기업이 담당하는 등 FDI 의존율이 높음

□ 베트남 섬유 의류 분야 진출 1위인 한국 기업

- 한국은 전체 베트남 섬유 의류 분야 FDI 투자의 25%를 차지하며 섬유 의류 분야 베트남 제1위 투자국임 (전체 진출 기업 수는 약 700개사로 추정)
- 베트남 역시 한국 섬유 의류 기업의 제1위 투자 대상국임

□ 베트남 봉쇄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애로 사항 발생

- 4월 말 이후 베트남에 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고 7월부터는 호치민 등 남부 지역에 봉쇄가 시작되면서 심각한 경영상의 애로 사항 발생

□ 대응, 전망 및 과제

- (대응) 공관, 공공기관, 코참(중남부, 북부) 등이 협업하여 공동 대응
- 현황 모니터링, 애로 접수 및 상담, 對 베트남 정부 건의 및 협의 진행
- (전망) 베트남 정부의 With Corona 전환에 따른 단계적 봉쇄 완화
- 베트남 의류 섬유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점차 회복
- (과제) 베트남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 요구하고 피해 기업 지속 지원
- 정부 간 협의 등을 통해 기업 요구·건의 사항에 충족하는 지원책을 베트남에 계속 요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함



최근 베트남 진출 섬유 의류 기업 현황과 대응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내 보고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베트남 남중부 유망 투자지 - 카잉화성

□ 카잉화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5,217km² • 인구: 1,240,001명('21년) - 도시거주 비율: 42.29%('19년)
지정학적 위치	카잉화성은 베트남 남중부 연해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푸옌(Phu Yen)성, 서쪽으로는 닥락(Dak Lak)성, 남쪽으로는 닌투언(Ninh Thuan)성, 서남쪽으로는 럼동성(Lam Dong)성,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와 인접해 있음
접근성	- 도로: 1A, 26번, 27C 국도 및 데우까(Deo Ca) 터널을 통해 인접 지방 및 중부 - 띠이응웬(Tay Nguyen) 지역(베트남 서부고원 지역)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음 - 항공: 캄자잉(Cam Ranh) 국제공항은 대부분의 국내 공항들과 연결되며 한국,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 가는 국제노선이 있음 - 수로: 캄자잉(Cam Ranh)국제항(110,000DWT 수용 규모) 및 냐짱(Nha Trang) 관광항(30,000DWT 수용 규모)이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 ('19년)	- 전년대비 GDP 성장률: 7.3% - 성 1인당 GDP: US 3,071 달러/년, 전년대비 8.27%성장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19년)	- 총 수출액: US 14.97억 달러 / 총 수입액: US 8.51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0.56%), 서비스업(7.44%), 농수산업(1.51%)
산업구조('19년)	공업/건설업 27.14%, 서비스업 51.72%, 농수산업: 10.78%
노무여건('19년)	-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56.39% - 노동가능연령 인구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22.8%
최저임금('21년)	- 냐짱(Nha Trang)시, 캄자잉(Cam Ranh)시: VND 3,920,000 = US 170 달러(2급지) - 닌화(Ninh Hoa)군, 캄람(Cam Lam)현, 지옌카잉(Dien Khanh)현, 반닌(Van Ninh)현: VND 3,430,000 = US 149 달러(3급지) - 카잉빈(Khanh Vinh)현, 카잉선(Khanh Son)현, 쩡엉사(Truong Sa)군: VND 3,070,000= US 134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19.12월 기준)	- 카잉화성 내 외국인투자는 총 96개 프로젝트, 37.6억 달러 (한국) 26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4.38억 달러를 투자하여, 카잉화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투자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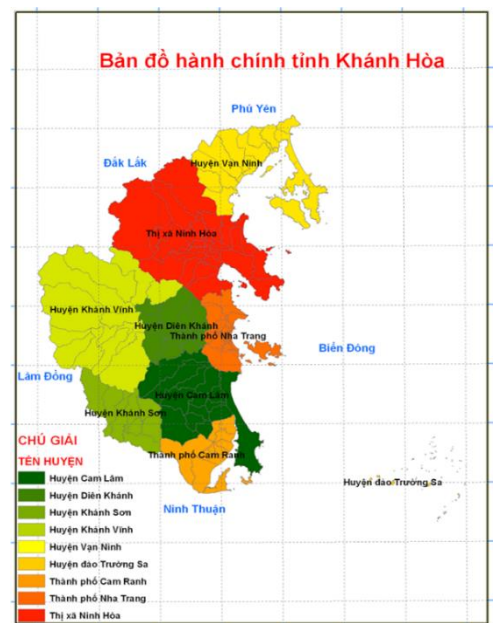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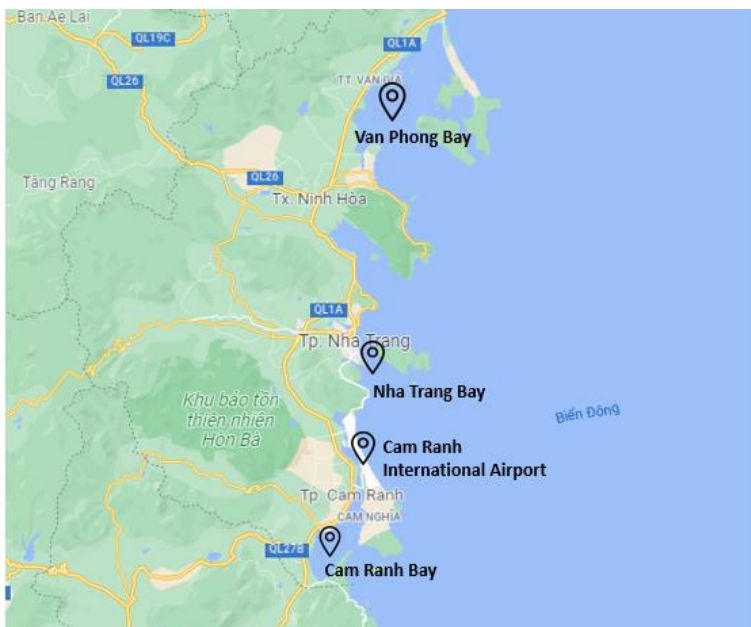
□ 투자환경

유리한 지리적 위치, 우호적인 자연환경, 편리한 교통 시스템,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으로 카잉화성은 산업생산, 특히 하이테크 산업, 수입품목 대체용 수출품목 생산, 해산물과 농·임·수산물 가공 산업, 금융, 통신, 고급 서비스 분야 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카잉화성은 북남쪽 교통축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 철도, 수로 및 항공 등 교통이 편리하고 서부고원지대 (Tay Nguyen)의 관문이며, 베트남의 국제 해상항로와 가까운 만과 항구가 제일 많은 성임.

감자잉 국제공항은 감자잉 반도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냐짱시에서 약 35km, 감자잉시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으며, Airbus A350, 보잉 787, 보잉 777과 같은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임.



카잉화성의 항만운송 및 교통개발은 동남아시아 국제 해상항로에 위치한 반풍(Van Phong), 냐짱(Nha Trang), 감자잉(Cam Ranh) 3개 항만에서 이루어짐. 이 곳에서 컨테이너 배송망을 활용하는 항구건설, 해양 서비스 및 조선산업개발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카잉화성의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감자잉항은 최대 50,000DWT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상업항구로 전환하고, 냐짱항은 여객터미널로 전환하여 최대 100,000GRT 규모의 국제유람선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반풍항은 12,000-15,000TEU(20피트 해당) 컨테이너선을 위한 담몬(Dam Mon) 항구지역 및 40,000DWT 선박 수용이 가능한 남반풍(Nam Van Phong) 항구지역(베트남의 최대 규모 환적항)으로 투자개발 될 예정임.

동시에 카잉화성은 해안지역에서의 원활한 운송작업을 위해 농촌 도로 시스템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음. 현재까지 45개 마을 중 44개 마을의 중심까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장마철의 침수 상황 극복 및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관광 및 천연 자원

• 관광

카잉화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냐짱(Nha Trang)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29개의 만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카잉화성 해변은 멋진 백사장과 수정처럼 맑고 푸른 바닷물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카잉화성에는 강, 호수, 온천, 음식문화, 관습, 전통직업과 관련된 관광자원 및 포나가르(Ponagar) 참 사원, Alexandre Yersin 박사 기념비, 냐짱만, 혼쑹(Hon Chong)곶 등 많은 국가적 유물들이 있음.

우수한 자연조건으로 카잉화성은 휴양관광, 사냥관광, 수영 및 다이빙 관광, 등산관광, 고고학관광, 회의-세미나 관광, 특히 바다 및 섬 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냐짱(Nha Trang)만



혼쑹(Hon Chong)곶



포나가르(Ponagar) 참 사원



Alexandre Yersin 박사 기념비

• 천연 자원

카잉화성은 광물, 진흙, 흰모래, 산호, 화강암, 이탄, 몰리브덴(Molybdenum), 고령토, 점토, 사금, 광천수, 내화 점토 등과 같은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현재 카잉화성에는 16가지 광물 광산을 포함하여 60개의 갱이 있음.

카잉화성은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 어업 물류, 주요 경제 구역 및 연해도시 개발 등에 있어 토대가 되고 있음.

카잉화 해역의 해산물물은 매년 약 15만톤으로 추정되며, 그중 주가 표층어류(70%)로서 연간 개발능력은 약 7만톤임. 해수는 염분 농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염류 제품, 특히 공업용 염류 생산에 유리함.



○ 인센티브 지원 정책

투자지역	법인세, 수입세, 토지임대료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법인세 <의결서(218/2013/ND-CP, 2013.12.26.)> (세율) 10년간 17%, 최초 2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감세(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 해부터 적용)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의결서(46/2014/ND-CP, 2014.05.15.)> -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기본 건설 중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최대 3년), 관할기관의 토지임대료 결정 발행일로부터 적용. 그 후에 15년간 계속 면제 -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기본 건설 중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최대 3년), 관할기관의 토지임대료 결정 발행일로부터 적용. 그 후에 11년간 계속 면제
	수입세 <수출입 관세에 대한 법률 제16.11조(107/2016/QH13, 2016.04.06.)> -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부품 및 자재 등 수입세: 5년간 면세(생산 시작일로부터 적용) - 수출입세법 및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의 고정자산 투자용 화물 수입세: 면세
반퐁 (Van Phong) 경제구역	법인세 <의결서(218/2013/ND-CP, 2013.12.26.)> (세율) 15년간 10%, 최초 2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면세(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 해부터 적용)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의결서(35/2017/ND-CP, 2017.04.03.)> ○ 기본 건설 중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최대 3년), 관할 기관의 토지 임대료 결정 발행일로부터 적용 ○ 위의 기본 건설의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 후: - 특별 투자 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 - 투자 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 17년간 면제 - 투자 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투자 프로젝트: 13년간 면제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 감면 수준은 투자자가 특정 투자 분야를 제안할 때 결정됨 ○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관한 법률에 따라 면세 ○ 기타 인센티브: 전문법에 따름
	수입세 <수출입 관세에 대한 법률 제16.11조(107/2016/QH13, 2016.04.06.)> -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부품 및 자재 등 수입세: 5년간 면세 (생산 시작일로부터 적용) - 수출입세법 및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의 고정자산 투자용 화물 수입세: 면세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총 23개 국가/영토에서 96개 프로젝트에 걸쳐 37.6억 달러가 투자등록됨. (2019년 12월말 기준)

○ 한국계 투자

한국기업의 투자는 총 26개 프로젝트에 걸쳐 4.38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으며, 카잉화성에 투자하는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9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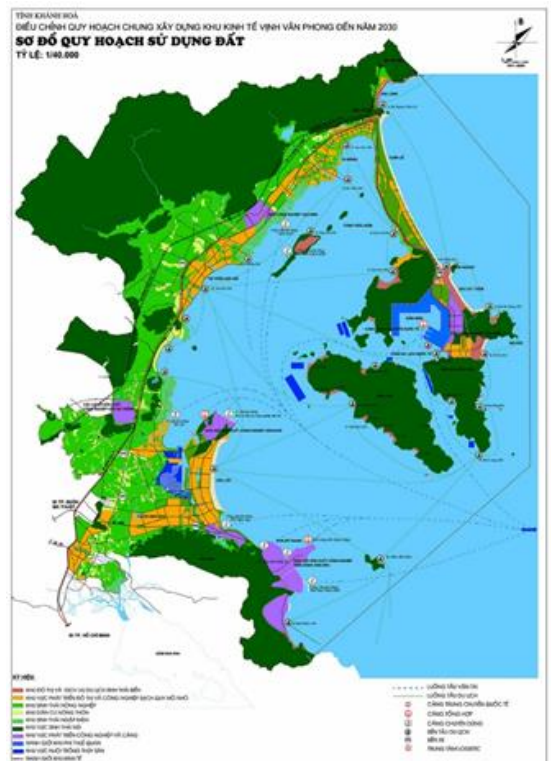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Van Phong Thermal Power Plant	제조 및 가공 산업	일본	2,580,000,000
2	Hyundai Vinashin Shipyard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	한국	372,502,000
3	T&M Van Phong Investment and Tourism Joint Stock Company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바하마	187,100,000
4	Cam Ranh Bay KND Co., Ltd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영국령 버진 제도	130,000,000
5	San Miguel Brewery Vietnam Co., Ltd	제조 및 가공 산업	홍콩	60,000,000
6	Marine Farm Asa Viet Nam Co., Ltd	수산물	노르웨이	33,300,000
7	Russian Cam Ranh Development Corporation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러시아	30,000,000
8	Branch of Lotte Vietnam Shopping Center Co., Ltd	무역	한국	28,733,000
9	Thien Duong Bay KDL Co., Ltd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이스라엘	24,300,000
10	Bai Dai Resort Co., Ltd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러시아	20,800,000

□ 공단 현황

○ 반퐁(Van Phong) 경제구역

- 설립년도: 2006
- 면적: 150,000ha
(토지: 70,000ha, 수면: 80,000ha)
- 위치: 카잉화성의 북쪽에 위치
- 다종 산업 경제구역이며, 석유 화학 산업 및 석유 및 석유 제품의 환적(주요 역할), 관광, 서비스, 양식업 및 기타 경제 부문을 포함함
- 카잉화성의 경제 중심지로서 투자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와 주변 지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임





○ 공단/클러스터 정보

순번	공단명/클러스터명	설립 년도	면적 (ha)	주요정보	투자자
1	Nam Cam Ranh 공단	2010	350	○ 투자 유치 산업 : 조선업, 지원산업, 기계제조, 자동차제조업 등	투자자 모색
2	Ninh Thuy 공단	2008	207.9	○ 투자 유치 산업: 기계, 전자, 건축 자재, 가전 제품 생산, 조선 및 수리 서비스, 화물 창고 등 ○ 투자비용: 2063년 6월까지 인프라가 있는 토지의 평균 임대료는 약 USD 35~45/m ²	Hoan Cau Van Phong Joint Stock Company
3	Van Thang 공단	2005	200	○ 투자 유치 산업: 청정산업, 첨단기술 등	투자자 모색
4	Suoi Dau 공단	1997	136.7	○ 투자 유치 산업: 과일·채소·통조림 식품·수출용 수산물 가공, 의류, 신발, 고정밀 기계, 전자 제품 제조, 고급 플라스틱, 자동차 유리 생산, 스포츠 장비 및 의료 기기 생산 등 ○ 투자비용: - 원지임대료: 국가 규정에 따름. - 인프라 사용료: USD 4.5/m ² , 전체 기간 동안 (2048년까지) 1회 지불: USD 22/m ² (VAT 별도)	○ 투자자: Khanh Hoa Trading and Investment JSC ○ 인프라 개발사: Suoi Dau Industrial Zone JSC
5	Dien Phu 클러스터	2004	43.8	32개 기업 입주 완료	N/A
6	Dac Loc 클러스터	2004	32.9	19개 기업 입주 완료	N/A

□ 투자 유망분야

- 주요 산업: 해양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조선, 항만, 해운 서비스 및 동 산업들의 지원산업
- 2차 산업: 에너지 장비, 전기 및 전자 장비, 가전제품, 해양부품 및 장비 생산, 농림 수산가공 등

□ 카잉화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반퐁(Van Phong)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Mr. Nguyen Trong Hoang	- Tel: +84-2583 560 972 - E-mail: bqlvp@khanhhoa.gov.vn - Website: vanphong.khanhhoa.gov.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21. 8. 20 기준 누계		2021. 1. 1 ~ 8.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9,159	72,346.69	251	758.94	2,438.01
일 본	4,739	63,826.62	120	2,375.96	3,215.36
싱가포르	2,764	62,504.65	140	4,932.88	6,214.75
대 만	2,832	35,046.26	46	265.22	1,102.08
홍 콩	2,012	27,044.31	81	1,060.92	1,392.25
버진아일랜드(영)	873	22,194.00	20	154.21	392.59
중 국	3,267	20,266.47	137	836.31	1,779.68
말레이시아	662	13,009.15	14	15.14	116.19
태 국	632	12,921.83	24	105.74	237.47
네덜란드	381	10,354.95	16	89.32	480.06
미 국	1,122	9,695.07	51	364.12	426.9
기타	5,629	51,403	235	366	1,327
전체 합계	34,072	400,612.68	1,135	11,325.20	19,122.2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1. 8.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8.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468	235,699.40	374	4,443.07	9,252.94
2	부동산경영	974	61,234.81	38	982.02	1,573.09
3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170	33,908.91	17	5,131.37	5,493.83
4	호텔, 외식서비스	895	12,549.48	11	33.79	139.33
5	건설	1,764	10,750.59	18	54.16	180.03
6	도소매,유지보수	5,467	8,817.32	323	189.53	734.17
7	물류운수	896	5,727.10	30	353.17	693.5
8	채광	107	4,894.76	-	-	1.47
9	교육, 양성	603	4,429.40	21	8.57	30.69
10	정보통신	2,411	4,053.58	95	27.7	175.91
11	기술과학전문	3,697	3,961.75	171	64.44	573.31
12	농,임,수산	509	3,681.74	9	31.1	102.67
13	예술 오락	137	3,392.34	1	0.13	0.9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0	2,895.03	1	1.01	83.1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999.85	-	-	2.7
16	행정, 지원 서비스	512	973.56	25	4.99	24.09
17	기타서비스	145	847.8	1	0.15	2.93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19	-	-	57.63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합계		34,072	400,612.68	1,135	11,325.20	19,122.2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8	2019	2020	2021.8 (누계)
수 출	2,434.8	2,641.8	2,826.5	2,135.2
수 입	2,366.8	2,530.7	2,627.0	2,161.5
무역수지	68.0	111.1	199.5	-26.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8 (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9,077	51,378	51,183	35,326
전기전자제품/부품	29,320	35,925	44,576	31,799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49	18,303	27,193	23,153
섬유/직물제품	30,448	32,850	29,809	21,109
신발류	16,238	18,320	16,791	12,628
원목 및 목제품	8,908	10,647	12,371	10,388
수송수단 및 부품	7,964	8,505	9,090	7,168
철강제품	4,549	4,210	5,258	7,060
수산물	8,794	8,543	8,412	5,569
원사(Yarn)	4,025	4,176	3,736	3,643
기 타	67,611	71,332	74,235	55,681
합 계	243,483	264,189	282,654	213,52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8 (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197	51,353	63,971	46,839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27	36,748	37,251	31,16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5,865	14,615	16,645	12,587
의류(원단)	12,774	13,276	11,875	9,524
플라스틱 원료	9,066	8,991	8,397	8,046
각종 철강제품	9,890	9,507	8,066	7,726
기타 비금속	7,249	6,385	6,052	5,842
플라스틱 제품	5,893	6,538	7,274	5,300
화학물질	5,163	5,128	5,016	5,036
화학제품	5,030	5,419	5,741	5,014
기 타	89,833	95,110	92,412	79,077
합 계	236,687	253,070	262,700	216,15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8 (누계)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61,858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33,409
3	한 국	14,823	18,205	19,720	19,107	14,118
4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13,304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7,394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5,055
7	독 일	6,364	6,869	6,555	6,644	4,742
8	태 국	4,786	5,494	5,272	4,917	3,954
9	인 도	3,756	6,542	6,674	5,235	3,919
10	영 국	5,424	5,776	5,758	4,955	3,902
	기 타	77,364	77,921	82,999	79,094	61,869
	합 계	214,019	243,483	264,189	282,654	213,52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8 (누계)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72,040
2	한 국	46,734	47,497	46,935	46,895	35,051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14,466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13,623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10,321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8,608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5,357
8	오스트레일리아	3,182	3,984	4,456	4,677	5,231
9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4,939
10	인 도	3,940	4,147	4,538	4,435	4,688
	기 타	40,521	46,238	47,975	48,826	41,830
	합 계	211,103	236,687	253,070	262,700	216,15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8 (누계)
수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35,629(21.0)
수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15,713(14.9)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19,915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8 (누계)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8,539(14.3)
평판디스플레이모니터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6,727(42.1)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2,130(-3.1)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1,599(61.0)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1,543(11.0)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848(23.3)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803(-4.5)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762(4.8)
계측제어분석기	1,058(145.1)	696(-34.2)	783(12.4)	669(-14.5)	719(55.3)
편직물	1,118(3.8)	1,107(-1.0)	996(-10.0)	851(-14.6)	611(18.7)
기타	17,516	16,121	16,350	15,244	11,348
합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11(0.7)	35,629(21.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8 (누계)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3,669(1.4)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2,049(2.6)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1,241(80.8)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769(6.1)
평판디스플레이모니터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535(-27.6)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509(23.2)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487(36.6)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447(11.6)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382(27.9)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326(19.7)
기타	5,279	6,197	6,330	6,473	5,299
합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15,713(14.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0~2021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0년(연간)	%	△5.4	△9.5	△5.6	△2.1	2.9
		2021년 1Q	%	1.3	N/A	△0.5	△0.7	4.48
		2021년 2Q	%	14.7	11.8%	16.1	7.1	6.61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107.5	N/A	109.8	147.1	3.4%
		2021년 7월	-	120.0	249.5	110.2	N/A	2.2%
		2021년 8월	-	122.2	439.6	N/A	N/A	△7.4%
	구매관리지수 (PMI)	2020년(연간)	-	N/A	N/A	102.4	44.7	N/A
		2021년 7월	-	51.0	50.4	112.5	40.1	45.1
		2021년 8월	-	50.9	46.4	N/A	43.7	40.2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0년(연간)	-	99.8	N/A	79.5	93.6	N/A
		2021년 7월	-	101.7	N/A	N/A	80.2	N/A
		2021년 8월	-	102.2	N/A	N/A	77.3	N/A
	소매판매	2020년(연간)	-	81.7	N/A	131.0	197.5	2.6%
		2021년 7월	-	86.7	1.5	126.5	188.5	△19.8%
		2021년 8월	-	N/A	N/A	N/A	196.5	△33.7%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0.2	N/A	△1.2	104.9	3.2
		2021년 7월	%	2.5	4.0	2.2	106.5	2.6
		2021년 8월	%	2.4	4.9	N/A	106.6	2.8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0년(연간)	%	△14.3	N/A	1.5	△5.0	△25
		2021년 7월	%	N/A	N/A	N/A	△0.2	△11.1(누계)
		2021년 8월	%	N/A	N/A	N/A	△7.5	△2.1(누계)
고용	실업률	2020년(연간)	%	3.0	10.4	4.5	7.1	2.5
		2021년 1Q	%	2.8	8.7	4.7	N/A	2.4
		2021년 2Q	%	2.8	8.3	4.6	N/A	2.6
무역	수출증가율	2020년(연간)	%	△3.2	△10.1	△1.4	△2.2	6.5
		2021년 7월	%	16.3	12.7	5.0	29.3	8.4
		2021년 8월	%	17.4	N/A	N/A	64.1	△5.4
	수입증가율	2020년(연간)	%	△7.4	△23.3	△6.3	△16.9	3.6
		2021년 7월	%	22.0	24.0	24.0	44.4	29.9
		2021년 8월	%	22.8	N/A	N/A	55.3	21.2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RCEP

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입전략 설명회

한걸음 다가온
메가 FTA 시대

행사개요

구분	내용	비고
일시	'21.10.07.(목) 13:00~15:00	(한국 시간 : 15:00~17:00)
장소	Zoom 온라인 생중계 (한국-베트남 이원 실시간)	①KOTRA 하노이 무역관 K-studio ②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③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참석대상	- RCEP 회원국(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ASEAN) 관련 수출입기업 - FTA 활용 신남방 지역(베트남 등) 수출 관심기업 - 해외 생산기지 운영 다국적기업 - RCEP 협정 활용 관련 모든 기업 및 유관기관	
진행방식	Zoom 웨비나 한국-베트남 동시 중계 (신청링크 하단 참조)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베트남	한국			
13:00-13:10	15:00-15:10	10'	설명회 개회사	
13:10-13:40	15:10-15:40	30'	RCEP 협정 개요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원산지 규정 및 운영 절차)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도예희 행정관
13:40-14:10	15:40-16:10	30'	RCEP 관세 양허스케줄 RCEP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변달수 관세사
14:10-14:40	16:10-16:40	30'	메가 FTA 시대의 도래 RCEP 누적기준 활용 신남방 GVC 구축 전략 신남방 대표 생산기지 베트남의 FTA 실무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	KOTRA 하노이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김태윤 관세사
14:40-	16:40-		개별 질의응답 및 폐회	-

☒ 참가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_1RswUvxbKRI0-uwhEg7qrXknsJcSX-u3DWIHKZS84/viewform?edit_requested=true

※문의처: KOTRA 하노이 김태윤 관세사 (kty5714@kotra.or.kr) / 이연호 사원 (dldusgh01@gmail.com)

주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서울본부세관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지역 FTA활용지원센터





<베트남 특별입국자의 '자가모니터링' 관련 안내>

지난 2021.4월 이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베트남의 대다수 성·시의 “사회적 거리 수준이 최고도로 높아져” 가면서, 그간 특별입국 당사자와 주판업체 등이 사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자가모니터링 장소”에 대하여 특별입국을 희망하는 분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베트남에 특별입국하시는 분들은, 백신 2차접종자의 경우 시설격리 7일 + 자가모니터링 7일,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시설격리 14일 + 자가모니터링 14일을 각각 하셔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개인이 묵어야 할 시설격리 장소에 대해서도 사전에 특별입국 주판업체로부터 상당정도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대다수 현장에서는 '자가모니터링'을 사실상 '자가 격리' 수준으로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어, 시설격리 종료 후 자가숙소가 없어서 자가모니터링 장소로 호텔 등 임시숙소를 택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숙박하실 특정의 임시숙소가 자가모니터링 장소로 베트남 당국의 제지를 받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 미리 확인·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자가모니터링을 위해 임시숙소로 이동하다가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베트남 공안당국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상당 시간동안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숙소에 들어간 후 퇴실조치를 당하거나 또는 다른 숙소를 물색해야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자가숙소가 없어 호텔 등 임시숙소를 자가모니터링 장소로 택한 특별입국자는, 해당 임시숙소가 자가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사전예’ 특별입국 주판업체, 해당 숙소 및 초청기관 등에 ‘문의 및 확인’하시어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저작권자 © KOTRA >